

흔들리는 가전산업 살려야 광주경제 숨통 트인다

자동차와 함께 광주 GRDP 72% 차지...대우위니아 사태로 위기 봉착 협력업체 피해 1146억원에 고용 392명 감소하고 어음부도율 치솟아 김주영 광주 TP연구원 분석...정부·지자체·유관기관 다각적 노력 촉구

광주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인 자동차 및 가전산업 가운데 가전산업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 및 고용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밀집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하남·진곡·평동1차·평동 2·3차 등 산업단지의 고용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28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게재된 김주영 광주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의 '광주 가전산업의 위기 대응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경제는 기아차, 대우에어텍, 한국알

프스, 현대 위아 등 자동차 주요 기업과 삼성전자, 대우위니아, 오택캐리어를 중심으로 가전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대우위니아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가전산업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피해 업체와 피해 규모를 조사 집계해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및 중앙정부에 지원 정책을 요청한 바 있다.

가전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2023년 12월 광주시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고용률은 60.6%로 14위(전국 고용률 63.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제조업 종사자의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 신규 고용 창출 여력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종사자 수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전국(7만3260개)의 1.8%(1316개), 종사자 수는 전국(298만1764명)의 2.2%(6만4980명)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는 증가율이다. 제조업체 증가율이 전국(1.0%)의 5분의1(0.2%) 수준이다.

광주 GRDP 중 자동차산업과 가전산업은 무려 72%를 차지하며, 지역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매출액 상승은 8.3%로 전국 11.7%보다 3.4%p 낮았으며, 종사자 수는 0.24% 상승했으나 전국 5.52%보다는 5.28%p 차이로 크게 밀렸다. 광주 지역경제가 성장이 정체된 이들 2개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편중된 산업구조로 이들 산업위기의 발생은 결국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 가전산업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위

기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삼성전자 광주공장 해외 이전으로 생산량이 10~40% 급감했고, 협력업체 매출액이 약 900억원이 줄어 대량 실직의 원인이 됐으며, 2020년 위니아대우 세탁기 생산라인 해외 이전으로 기능직, 관리직 약 200여 명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유발됐다. 완제품 메이커를 보유한 대기업의 생산시설 이전, 생산량 감소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 대부분 관련 업체의 대응력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가전산업은 광주지역 대표산업으로 앵커기업 및 협력업체가 집적돼 가전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으나 지난 2023년 앵커기업인 위니아 및 대우위니아 관련 회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지역 가전산업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 대우위니아 그룹 계열사 임금채 불액은 708억원으로 추정되며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우위니아 피해업체의 경영 악화는 고용악화로 이어져 조사에 참여한 78개사의 고용은 2022년 12월 대비 12%에 해당하는 392명이 감소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광주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및 어음부도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의 어음부도율은 전국 평균의 10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9월과 10월은 위니아 기업회생 신청과 맞물리는 시기로 어음부도율의 수치는 경제지표 중 위기 징후의 특이점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경제조사팀은 청년 고용 부진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주영 책임연구원은 "지역 대표산업 생태계 붕괴와 청년고용의 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광주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효성, 방한 베트남 총리 만나 미래 사업 협력 방안 논의

"탄소섬유 글로벌 생산 거점 육성" 판민진 총리 "적극 지원 하겠다"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대표가 지난 1일 방한 중인 판민진 베트남 총리를 만나 다각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일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과 조 대표는 판민진 총리와 만나 현재 베트남에 추진 중인 물류·데이터센터,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과 핀테크 등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 회장은 "100년 효성의 미래를 베트남에서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력제품 외에도 첨단소재, 데이터센터 등 베트남에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신규 투자를 통해 베트남을 향후 탄소섬유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판민진 총리는 이날 효성의 지속적인 베트남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효성의 베트남 비즈니스에 대한 애로사항 없는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판민진 총리는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성의 미래사업 투자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 2007년부터 스파텍스와 타이어코드, 전동기 등 주력사업과 첨단소재인 탄소섬유와 친환경 원료인 바이오 BDO 등 미래사업 분야에 38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베트남 내에서만 연 매출 3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7월 참외와 수박 등 과채 가격이 1년 전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 반면 배추, 무, 당근 가격은 최대 11% 넘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은 여름 인기 과일을 선보이고 있는 롯데백화점 직원들.

배추는 작년보다 비싸고 수박은 저렴

농촌경제연구원 7월 농산물값 전망 작황 부진 당근 도매가 67% 상승

7월 배추, 무, 당근 가격은 1년 전보다 비싸지만, 참외와 수박 등 과채 가격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업관측 7월호' 보고서를 통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이 10kg에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11.6% 비싸다.

이는 여름 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이달 배추 출하량이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7.2%, 7.4% 줄어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여름 무도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 정도 줄어, 무 도매가격이 20kg에 1만5000원으로 21.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년과 비교하면 30.1% 오른 수준이다.

농경연은 봄철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인 당근은 이달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근 도매가격은 20kg에 7만5000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6.9%, 130.3%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오이 및 고추 도매가격은 10kg에 3만7000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22.0%, 14.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생산량 감소에 따라 깎마늘 가격은 kg당 690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4.5%, 4.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농경연은 참외, 수박, 토마토, 양배추 등 제철 과채, 햇사과(쓰가루), 백도, 사인머스캣 등 과일 도매가격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닭고기는 북반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량이 늘어 1년 전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농경연은 진단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수도권에 기업금융 특화센터 4곳 신규 개점

권역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광주은행이 지난 1일 서울·경기지역 영업점을 통합·이전해 기업금융 특화센터 4곳을 신규 개점했다.

〈사진〉 새롭게 문을 연 곳은 서울 잠실·삼삼·성수 금융센터, 경기 판교 금융센터 등이다.

이번 특화센터 신규 개점은 수도권 영업 기반 및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광주은행은 수도권 내 영업점 재배치 및 기업금융 중심의 중·대형화를 통해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 지속가능한 성장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금융 특화센터에는 타 금융기관 출신 기업금융전문 지점장을 포함해 오랫동안 여·수신 업무를 수행했던 기업금융 전문가를 배치, 고객별 맞춤형 상담으로 금융 니즈를 파악하고 최적의 금융 해법을 제공해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더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화센터 내부 모습을 기존의 획일적인 직선형 창구가 아닌 곡선형 창구로 설계해 자유롭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형 공간



으로 개선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수도권 기업금융센터 개점으로 광주은행의 영업력을 집중해 수

도권 영업 기반과 기업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상반기 전국 분양시장 청약경쟁률 6.22대 1

지난해 7.87대1보다 낮아져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시장의 평균 경쟁률이 6대 1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아파트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 144개 단지에서 6만943가구(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가구 기준)가 공급됐으며 1순위 청약에 37만889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6.2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순위 평균 경쟁률(7.87대

1)보다 낮아진 것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가라앉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서울은 688가구 분양에 7만2790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5.8대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는 지난달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로, 1순위 경쟁률이 494.11대1에 달했다. 지난 2월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가 442.32대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청약 열기가 다소 식은 분위기다. 경기도의 1순위 경쟁률은 2.31대1에 그쳤고 인천도 3.87대1

수준이었다.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상반기 1순위 경쟁률 역시 1.46대 1로 작년 동기(4.22대1) 대비 크게 떨어졌다.

부산의 1순위 경쟁률은 1.2대1, 대구는 1.11대 1을 각각 기록했으며, 대전은 0.62대1에 그쳤다.

반면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지방 도시의 평균 경쟁률은 11.68대1로, 작년 상반기(9.67대 1)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연간 평균 경쟁률(10.77대 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북이 42.86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인포는 상반기 소비자들이 '묻지마 청약'을 자제하고 확실한 지역이나 단지에 소신 청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하반기에도 이런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6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2%대로 내려앉아

1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으면서, 지역민들의 고물가 부담이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광주 2.3%·전남 1.8%) 이후

1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달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4.38로 전년 대비 2.7% 올랐고, 전월보다는 0.4% 하락했다. 전남은 114.68로 1년 전보다 2.7% 상승했고, 전월에 견주어 0.3% 감소했다.

지역민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광주와 전남이 각각 0.4%p, 0.3%p 하락했다. 다만, 과일류와 어류 등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한 신선 식품 가격이 최근 하락하고 있

지만, 여전히 전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신선식품 가격 안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광주시 신선식품지수는 126.17으로 전년 동월(114.36)보다 10.3% 올랐다.

품목별로는 배(175.1% ↑), 사과(56.4% ↑)가 여전히 전년보다 비쌌다.

전남의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 높은 122.46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1년 전보다 배(130.9% ↑)와 사과(68.7% ↑) 등 신선 과일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80.86 (-23.45)
↓ 코스닥	829.91 (-17.24)
↓ 금리(국고채 3년)	3.169 (-0.041)
↑ 환율(USD)	1388.20 (+8.90)